

## 우리經濟의 課題와 政策對應 (2)

### 問: 最近의 經濟動向과 政策對應

今年들어 業界는 景氣沈滯에 對備해 景氣浮揚策을 마련해 주도록 계속 主張해 왔으나 그때마다 政府는 安定的 好況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 經濟에 아무런 問題가 없는 것처럼 말해 왔는데, 지난 上半期中 經濟成長은 3.2%에 머물렀고 失業問題도 深刻해지고 있는데 政府는 앞으로 經濟運用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 가. 最近의 經濟動向: 期待에 未洽

- 今年들어 우리 經濟는 무엇보다도 物價安定基盤을 確固히 다지면서 國際收支赤字幅을 縮小하는데 經濟政策의 力點을 두고 모든 施策을 펴왔으나
- 對外的으로는 世界的인 景氣沈滯의 影響으로 輸出이 생각보다 훨씬 不振하였고 家計의 消費節約, 民間建築景氣의 沈滯 등에 따라 內需조차 活潑하지 못한데다가
- 여기에 昨年 上半期の 10.5%라는 異例의인 高成長에 따른 相對的인 反落要因까지 겹쳐서 지난 上半期中 經濟成長은 3.2% 水準에 머문 것으로 推計됨으로써
- 下半期에 7~8% 成長을 하더라도 年間 5~6% 水準에 그칠 展望임.
- 한편 1~7月中 國際收支는
- 貿易收支가 昨年에 此해 780百萬弗이 改善되었고

- 海外建設受入減少, 支給利子の 增加 등으로 貿易外收支赤字가 370百萬弗 增加함으로써

- 經常收支는 前年同期에 비해 424百萬弗이 改善된 917百萬弗 赤字를 보였음.

- 物價는 去年보다 2~3%가 높은 賃金上昇과 換率實勢化 등에 따른 原價上昇要因이 있었으나 原油를 비롯한 輸入原資材 價格의 安定과 企業의 原價節減努力 등으로 이를 吸收하여 지난 7月末까지 都賣物價는 前年末 水準에서 維持되었고 消費者物價는 1.8% 上昇한 線에서 安定을 維持하고 있음.

- 한편 이제는 우리나라 貿易量의 對 GNP 比重이 상당히 높아져 海外의 經濟動向에 우리 經濟도 敏感하게 影響을 받게 되는데

- 上半期中 美國, 日本 經濟의 成長勢가 계속 低調한 가운데 回復이 遲延되고 있고

- 臺灣, 싱가포르 등 隣接國도 先進國 景氣의 鈍化에 따라 輸出이 不振하고 國內生産活動이 低調하여 成長勢가 더욱 낮아졌음.

### 나. 오늘의 어려움: 겪어야 할 陣痛

- 今年들어 우리 經濟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우선 相對的으로 지금까지의 急速한 高度成長過程에서 派生된 各種 構造的 非能率要因을 除去하고 體質을 改善하여 先進經濟로 進入하는過程에서 겪어야 할 不可避한 陣痛이라 할 수 있음.
- 오랜동안 인플레이를 隨件한 高度成長에 젖어 있는 우리 國民으로서는 우리 經濟의 成熟過程에서 必然的인 “安定과 低成長”에의 適應이 결코 쉽지 않은데다가 특히 最近에는 對外的으로 世界景氣

의 鈍化와 主要先進國의 輸入規制 強化로 貿易量이 減少함에 따라 더욱 苦痛스럽게 느껴지고 있음.

- 따라서 一部 國民들간에 各自 自己 몫이 犧牲당한데 대한 慾求不滿이 생기고 投資意慾이 떨어져 政府가 차라리 安定고삐를 늦추고 過去의 인플레이션時代로 돌아가 우선 當장 자기 몫만을 保障받을 수 있는 施策을 썼으면 하고 바라는 傾向이 대동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음.

#### 다. 政府의 政策對應

- 그러나 政府가 安定意志를 절대로 흐트러뜨릴 수 없는 것은 物價安定이 不勞所得의 機會를 없애고 所得分配를 改善하는데 必須的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수한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物價가 安定되지 않고는 技術開發과 品質管理의 努力이 未洽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 商品의 國際競爭力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임.

- “物價抑制線을 꼭 固守할 必要가 있는가?” “5% 程度로 늦추고 景氣浮揚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사람도 있으나 우리의 競爭相對國인 日本, 臺灣의 都賣物價는 지난 上半期中 各各 平均 0.4%, -2.2%가 上昇하여(우리나라 1.2%) 결코 樂觀할 수만은 없는 立場인데다가 物價란 心理的인 要因도 적지않게 作用하므로 5%가 되면 10%가 되는 것은 時間問題임.

政府도 우리 經濟가 특히 輸出의 상대적인 不振으로 부터 올 어려움을 미리 豫想하고 今年 3月부터 輸出競爭 力補強과 設備投資促進을 위한 施策을 펴오고 있음. 지난 3月과 7月의 두차례에 걸쳐 취한 主要施策의 內容은

- 輸出金融의 融資單價를 引上하고 換率을 實勢化하였으며
- 輸出設備金融과 國產機械購入資金을 擴大하는 한편
- 製造業設備投資促進을 위한 與信管理制度의 彈力的 運用
- 임시 投資稅額控除制度를 施行하고 計劃造船

資金을 增額하였으며

- 不振한 庶民住宅建設 支援對策을 發展시키고 있음.
- 今年들어 推進하고 있는 政府施策에 대해 一部에서는 우리 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課題인 成長勢 回復과 雇傭增大에 미흡하다고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마치 政府가 安定化 施策의 基本틀마저 포기하면서 景氣浮揚을 試圖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음.
- 그러나 政府는 지난 4年餘 동안 온 國民의 獻身的인 協調로 다져진 安定의 틀을 維持하면서 그 흐름의 範圍內에서 輸出競爭力 補強과 投資促進 施策을 柔軟性있게 推進하고자 하는 것임.

#### 라. 制限的인 政策代案

- 最近의 政府施策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政府가 돈을 풀어 景氣를 浮揚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겠지만 막상 政府가 使用할 수 있는 政策代案이란 國民經濟 전체를 생각하면 결국 制限的일 수 밖에 없음.

- 우선 모든 國民들이 걱정하고 있는 外債問題만 하더라도
  - 外債를 줄여나가는 길은 輸出을 늘리거나 消費를 줄여 貯蓄을 늘려나가는 方法밖에 없음.
  - 그러나 現實的으로 海外景氣가 전반적으로 沈滯되어 있는 狀況에서 輸出增大란 우리의 希望처럼 容易한 일이 아니며, 内需에 影響을 주어 일자리가 줄지 않는 線에서 어느 程度 지나친 消費를 줄여야 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課題를 안을 수밖에 없게 됨.
- 最近 社會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賃金, 勞使紛糾 등 問題를 보면
  - 물론 經濟發展의 窮極的인 目的이 보다 잘사는데 있으니 만큼 勤勞者는 可及의 많은 賃金을 받기를 願하나
  - 勤勞者가 企業의 支拂能力을 벗어나는 賃金 引上을 要求하고 관철시키려 하면 企業主는 일자리를 줄이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니

## 問答으로 풀어본 우리경제

- 勞使 兩側에 모두 滿足을 주는 適正賃金水準의 決定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
- 또 하나 財政問題를 살펴보면
  - 納稅者는 税金을 줄여 주기를 원하고
  -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生活環境整備나 社會福祉 등 國民生活의 質的向上을 위한 需要는 急激히 增加하고 있어
  - 財政에 대한 社會的인 期待水準을 어떻게 國民의 擔稅能力 範圍內로 自制하느냐는 問題가 꼭 어려운 課題임.
- 現在 우리 經濟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成長이나 雇傭增大側面만을 생각해서 打開하려

한다면 財政借入을 해서라도 事業을 크게 벌려야겠지만 物價나 國際收支를 다같이 考慮해야 하고 또 財政이 다시는 通貨增發의 窓口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確固한 信念을 가지고 있는 政府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고충이 있음.

- 따라서 앞으로도 政府는 安定基調를 계속 堅持하는 가운데 海外與件과 景氣動向에 伸縮性있게 對應해 나감으로써 適正水準의 成長을 持續해 나가고 國際收支赤字를 最小化하도록 努力할 것이며 이를 위해 年初부터 推進해온 輸出增大나 生産의 投資促進을 위한 施策 등을 꾸준히 펴 나갈 計劃임.

\*經濟企劃院 제공\*

### “에너지절약운동에 적극참여합시다”

11월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설정한 政府는 이달중 公職者와 전국민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폭넓게 실시, 에너지절약 운동의 生活化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따라 당국은 11월12일부터 30일까지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 구내에 에너지상설홍보관을 설치하고 전국민들이 수시로 견학토록 할 계획이며, 11월29일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병원에너지절약 사례발표회를 개최한다.

병원협회는 이 행사에 전국 각 회원병원에 근무하는 전직원은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에 적극 호응,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